8차시
폴디 페촐리 미술관에서 배우는 CSR

학습 내용

1. 베풂의 미학이 필요한 시대
2. CSR로 성공한 사람들
3. 바뀐 세상, CSR도 제대로 해야 칭찬받는다

1. 베풂의 미학이 필요한 시대

- 밀라노 도심에 있는 폴디 페촐리 미술관은 과거 귀족가문이 사용하던 저택을 개조하여 그 집안이 사용하던 물품과 소장한 미술품, 보석 등을 전시한 미술관이다.

- 규모는 작지만, 중세 이후 이탈리아 유력 귀족 가문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

2. CSR로 성공한 사람들

- 과거 단순한 물품이나 금전적인 기부 활동이 주를 이뤘던 CSR활동은 최근 들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고 있다.

- 히피시절 친구상이였던 두 영국인 사업가들이 유명인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만든 잡지를 노숙인들이 판매해서 그 돈으로 자활을 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던 잡지 <빅이슈>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, 새로운 스타일의 CSR을 대표하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.

3. 바뀐 세상, CSR도 제대로 해야 칭찬받는다

- 현대 기업 경영의 주요 화두 중 하나인 CSR에 대해서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, 아무리 선한 의도로 좋게 시작한 일이라도 그를 수혜 받는 사람들에 대한 진심이 결여되거나,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은 일방적인 CSR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 옮을 생생하게 절감할 수 있는 한 사례가 되겠다.

- 과거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기부하건 간에 칭송을 받았던 CSR활동은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 그 절차와 방식까지도 CSR에 걸맞게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제대로 된 CSR로 평가 받는 시대가 되었다.